뉴욕의 미술품 컬렉터 수 스토플

우리 삶을 되팔 수 없듯이 예술 작품도 그러하다

수 스토플(Sue Stoffel)은 뉴욕에 거주하는 현대미술 컬렉터이다. 뉴욕현대미술관(MoMA) 현대미술위원회 임원을 비롯 세계 최대의 미술 축제 중 하나인 아모리쇼(The Armory Show)의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현재는 '스토플/영: 아트 뉴욕(Stoffel/Young: Art New York)' 설립 이사로서 아트 컨설턴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보다 그녀의 열정에 어울리는 직함은 바로 컬렉터일 것이다. 4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컬렉터 집안의 일원인 그녀에게 미술 작품은 문학이고 역사이자 삶 그 자체이다. 그러니 그녀의 소장품은 구매된 적도 없으며 되팔릴 일도 없을 것이다.

인터뷰 강희경 **디자인** 황혜림 **번역 편집** 최지연 **사진** 강재석

미술 작품 수집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고 첫 소장품은 무엇인지요?

1982년부터 수집을 시작했으니까, 내년이면 꼭 30년이 되네요. 첫 작품은 대지미술가인 크리스토와 장 클로드(Christo and Jeanne-Claude)의 기념상 감싸기 사진 시리즈 중 1970년 작품인 〈밀라노의 감싸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기념상(Wrapped Monuments to Leonardo da Vinci)〉입니다. 당시 저는 취리히에 살고 있었고 남편에게 줄 결혼 기념 선물을 찾고 있었지요. 잘 알고 지내던 미술상이 이 작품이 훌륭한 결혼 기념 선물이 될 것이라고 추천해주었고, 저도 이 작품이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미술 작품을 수집해오셨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인가요?

어떤 이들은 집착이라고도 하지만 저는 당연히 열정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세대를 이은 미술품 수집 집안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 할머니와 어머니는 미술 작가이자 컬렉터셨습니다. 저 그리고 저희 딸들까지 수집하고 있으니 4대째 저희 집안 여성들은 미술품 수집을 해오고 있는 셈이네요. 1970년대 초, 제 어머니께서는 저를 뉴욕 소호에 있는 갤러리에 자주 데려가곤 하셨지요. 그때 본 작품들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스토플 집안 소장품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컬렉터가 되려면 훌륭한 시각적 통찰력을 지녀야 합니다. 수집한 작품 하나하나는 개인의 인생만큼 다양하고 또 그 가치는 유일합니다. 그런 작품을 알아볼 수 있는 심미안이 있으려면 작품을 많이 찾아보고, 여행도 많이 다니면서, 미술사를 공부하는 등 나름의 수련을 해야 합니다. 특히 4대째 여성들이 수집을 하고 있으니 저희 집안 소장품에 관한 세세한 이야기들은 더 다양하고 개인적이지요. 그중 제 개인적인 수집 철학은 젊은 작가에게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들을 직접 만나고 대화할 때 작품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친밀감도 느끼지요. 젊은 작가들의 미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들 작품이 발전하고 진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가족들은 주로 어떤 작품을 수집하나요?

저희 부모님은 1960년대 초기 팝아트 작품을 비롯해 다양한 작품을 지금까지 활발하게 수집하고 계십니다. 1980년대 맨해튼 남쪽 로어이스트 사이드에는 많은 아티스트들이 살았는데, 그들이 남긴 도시 생활을 소재로 한 어둡지만 강렬한 작품도 여럿 소장하고 계시고요.

가족 간에 최근에 구매한 작품이나 미술계 소식에 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물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는 각자가 좋아할 만한

1 테이블 위에 놓인 조각 작품은 타다시 카와마타의 〈PS1의 옥상(1987)〉이다.
2 아라드의 〈과일접시(1998)〉, 히로시 스기모토의 '극장' 시리즈 사진 등이 거실벽의 한면을 가득 메우고 있다. 벽 중앙에 걸려 있는 커다란 사진 작품은 마시모 비탈리의 〈지미나노의 해변(1999)〉이다.

1

2

3

1 서재의 창쪽에 놓인 톰 어터니스의 조각 〈시간은 돈이다(1999)〉. 어터니스는 뉴욕 지하철역의 공공미술작품인 〈언더그라운드의 세상(2000)〉으로 유명하다.
2 샬롯 웨스터그런드의 〈버다 거북이(1999)〉. 유명하지 않은 작가였지만 작품 속 이미지와 색깔이 마음에 들어 구입했다고 한다.
3 아시아 컨템퍼러리 미술의 거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이웨이웨이의 〈먼 옛날의 항아리(2004)〉.
4 피아노 이미지의 작품은 크리스찬 말클레이의 〈무제(2003)〉, 오른손 형상의 조각은 루이 프랑겔라의 〈손(1985)〉,
푸른 하늘 아래 인물이 서 있는 사진은 폴 챈의 〈고도를 기다리며(2006)〉, 오른쪽 위아래로 걸린 작품 두 점은 프레드 토마셀리의 〈무제(2004)〉이다.

전시회와 작가를 서로에게 추천하지만 작품 가격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작품에 걸맞을 법한 가격대를 제안하기는 하지만, 그 작품의 실제 가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으려 합니다.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서로의 형편을 존중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컬렉터로서의 DNA를 타고난다는 말이 있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어린 시절부터 컬렉터 기질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 스위스에서 20여 년 동안 살면서 미술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취리히가 1980~1990년대에는 가장 중요한 미술 도시 가운데 하나였지요. 저는 바젤 미술시장에서 일하면서 취리히와 뉴욕 갤러리 간의 관계를 15년간 도모해왔습니다. 그리고 취리히 현대미술관인 쿤스트하우스 취리히(Kunsthaus Zurich)에 컨템퍼러리 아트 이사회를 설립해 뉴욕의 고객에게 취리히 미술계를 소개했지요. 정보를 활발히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일도 같이했습니다. 컬렉터들에게는 그런 정보가 중요하니까요.

주로 어떤 공부를 하셨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학부 때는 프랑스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취리히 대학교에서 아시아 미술사학으로 석사를 취득했고 그 과정에서 일본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예술경영학으로 두 번째 석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문학과 역사를 즐겨 공부했는데 이 지식을 실용적으로 쓰고 싶었습니다. 결국 미술 작품을 수집하는 것도 각국의 작가와 작품 배경에 대해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연구하고 해석하는 것이기에 문학과 역사에 대한 이해는 컬렉터에게 아주 중요한 자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컬렉터와 미술애호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당신에게 컬렉터란 어떤 의미이죠?

컬렉터가 미술애호가와 다른 점은 작품을 구입하고 그 작품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제가 구입한 작품을 결코 상품으로 취급해서 되팔지 않습니다. 또 진정한 컬렉터는 다른 이의 의견, 그러니까 타인의 생각이나 취향 또는 시장 정보에 의존해서 수집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본능에 따라 작품을 선택합니다.

현재 소장하고 계신 작품은 몇 점이나 되는지요?

대략 185점 정도 됩니다. 그중 약 50% 정도는 사진, 30%는 회화, 20%는 조각 작품입니다. 설치 작품은 수집하지 않고요. 설치 작품은 한정된 공간이 필요한데, 아이들과 강아지를 키우고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주거 공간이 미술관처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컬렉터로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미술 작품과 함께 하며, 그것이 지닌 의미와 소중함을 깨달아가며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수집한 작품 대부분이 사진이라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래 이사를 했는데 일단 사진 작품은 이차원의 평면 작

품이니 수집하기 쉽고 이동과 설치도 용이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복제품이 존재하는 것도 특이한 점이고요. 특히 요즘 젊은 작가들은 카메라를 잘 사용하고 그것으로 재미난 작품도 많이 만들고 있지요.

아시아 컨템퍼러리 작품도 많이 소장하고 계신데 관심을 갖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2000년에 중국과 동남아를 여행했는데 미술에서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린 듯했어요. 당시는 중국 미술시장이 막 성장하던 시기였죠. 특히 제가 전공한 아시아 미술에 대한 배경 지식이 큰 도움이 되어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그 후로 중국 작가 작품 위주로 아시안 컨템퍼러리 작품을 수집해왔습니다. 특히 개념미술의 아버지인 아이웨이웨이를 비롯해서 샹황, 자이코창, 웡칭송의 사진 작품들을 좋아합니다. 중국 외에도 한국 미술에도 관심이 많은데, 한국 전통 미술과 역사가 현대 이전의 아시아 미술과 역사에서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한국 작가가 있으신지요?

최상아 작가의 작품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만의 역사와 경험을 한국적인 은유법을 사용해 시적으로 훌륭하게 표현하는 김수자 작가의 작품을 좋아합니다.

롱아일랜드 교외에 있는 대저택에서 살다가 뉴욕 시내로 이사했습니다. 그때 소장품의 관리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소장품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 경매나 사적인 경로로 판매를 하셨나요?

저는 결코 작품을 팔지 않습니다. 모두 작품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작품과 함께 생활하는데 있어서 롱아일랜드 저택과 뉴욕 시내의 아파트는 어떻게 다른가요?

특별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사는 공간의 크기만 다를 뿐이죠. 작품을 어디에 걸고 보관할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품이 언제 어디에 있든 저에게는 모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작품을 위한 공간 자체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작품을 잘 보존할 수 있는 환경은 중요합니다. 작품이 훼손됐을 때 저는 먼저 갤러리에 전화를 걸고 방법을 찾습니다. 종종 작가들이 직접 와서 작품을 손봐줄 때도 있는데 특히 젊은 컨템퍼러리 미술 작가들은 무척 신속하게 도움을 주더군요. 물론 작품에 보험을 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소장하고 계신 작품을 미술관이나 재단을 만들어 기증하는 일에 대해 생각해보셨나요? 앞으로 소장품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 소장품의 일부는 테이트 모던(Tate Modern)과 할렘 스튜디오 뮤지엄(Studio Museum of Harlem), 브루클린 뮤지엄(Brooklyn Museum) 등 여러 기관에 이미 기증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 소장품을 그 성격에 맞는 기관에 기증할 생각입니다. 미술사의 한 흐름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작품의 일부로서 제가 소장한 작품들이 그렇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녀 중 한 분이 미술계에서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세 딸 중 한 명이 미술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스물두 살 된 딸이 있는데 아트페어에서 열 점에서 열두 점 정도 작품을 구매했더군요. 종종 딸과 미술시장을 같이 다니며 작품을 고르곤 하는데, 미술상들과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지, 작품에 대한 사전 조사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구매 결정은 어떻게 내리는지 등에 관해 제가 조언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즐기며 감사히 여기는 딸의 모습을 보면 저 또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컨템포러리 작품 가격 부풀리기 등 현대 미술시장이 과열된 면도 없지 않은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000년 초기 작품들의 가격이 폭등하긴 했지만 작품에 대한 저의 취향이나 작품을 구매하는 성향은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저는 제 소신을 지키며 시장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장 동향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제 마음을 끄는 작품을 찾아 구매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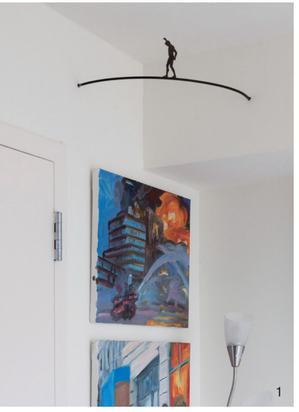
최근 현대미술계의 동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땐 미술시장뿐만 아니라 작가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갤러리가 작가의 작품 제작 비용을 절감하거나 지원해주지 못해 새로운 재료를 찾아나서는 작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재료보다 조금 더 저렴한 재료를 사용하기도 하고 규모가 작은 작품을 제작하기도 하고, 또 재활용 재료를 쓰기도 하지요. 이렇게 탄생한 작품은 자연스럽게 친환경이란 주제를 반영하기도 하고요. 주제의식에서는 기름 유출 사건이라든가 미국과 이라크 간 전쟁, 성과 정체성 등 세계적인 이슈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 변화에 힘입어 작가들은 이력서를 만들 때도 자신의 나이와 출신, 국적은 물론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대해서조차 표기하길 거부하며 작가 그 자체로 평가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동시대적인 사고가 가장 생생히 살아 숨 쉬는 것이 컨템퍼러리 미술입니다. 또 그들이 그리는 세계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라고 할 수 있고요.

뛰어난 컬렉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다양한 작품을 보는 것을 즐겨야 합니다. 당연히 어떤 작품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내가 좋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요. 그럴 땐 작가나 갤러리에 많이 물어보세요. 훌륭한 컬렉터는 좋지 않은 작품 또한 많이 봐야 합니다. 자신이 진정 어떤 작품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거든요. ㅎ

1 천장 모퉁이에 기발하게 놓인 작품은 후버투스 폰 데어 골츠의 〈선 위의 사람(1995)〉이다.
2 마주 보고 있는 사진 2점은 스토브 여사의 첫 소장품인 크리스토의 〈밀라노의 감싸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기념상(1982)〉이다.
3 서재 위에 놓인 작품은 왼쪽부터 프랑코 몬디니-루이즈의 〈나자레스의 치즈(2003)〉, 크리스티 렙의 〈무제(1996)〉, 마이클 주의 〈과학적인 부처상(1998)〉이다.
4 안방에 걸려 있는 작품으로 왼쪽부터 팀 데이비스의 〈무제(2004)〉, 마이크와 덕 스탄의 〈부처(2003)〉, 록시 페인의 〈휘트니 비엔날레를 위한 습작(2003)〉이다.


1

2

3

4

인터뷰를 한 **강희경**(Christina H. Kang)은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트 컨설턴트이자 미술 교육 사업가이다. 예술이 있고 또 예술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세계 어디든지 달려가는 열정적인 미술 전문가다. 강희경은 현재 뉴욕 패러다임아트컴퍼니의 대표로서 아트 비즈 워크숍, 아트 앤 레스토랑, 아트 앤 컬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